



한류스타 안재욱

절밥 먹으며 팬 ♥ 포에버

“어느 곳에 있어도 다른 삶을 살아도/ 언제나 나에게 위로가 되
준 너/ 내 삶이 하나 듯 친구도 하나야” 힘들고 지칠 때 기댈 곳은
‘친구’라고 노래하던 한류스타 안재욱이 팬들과 함께 인제 백담사
를 찾았다.



빈갑게 인사하는 안재욱과 백담사 템플스테이 진행자 대한 스님(왼쪽), 국내외 팬들에게 비빔밥을 설명하는 안재욱.



‘별은 내 가슴에’에서 오른손 검지 하나로 90년대 후반 한국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주인공 안재욱과 그의 팬클럽 ‘포에버 (Forever)’는 백담사 인근의 미리내 캠프에서 2박3일간의 팬미팅 (제13회 Forever Summer Camp)을 열고 일정의 마지막으로 백담사에서 회향 모임을 가졌다.

팬들과 백담사 방문 “고찰서 행사 좋네요”

서늘바스가 설악산을 오르는 동안 일본팬들은 창밖으로 펼쳐진 절경에 ‘아 스고이(멋져요)’하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7월 27일 오전 11시경 백담사에 도착한 한류스타 안재욱과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에서 온 460여 팬들을 절 식구들이 반갑게 맞았다. 백담사 템플스테이 팀장 진옥 스님은 “다양한 국적의 팬들께 우리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어서 참 보람차고 기쁘다”고 말했다. 점심공양 시간이 되자 안재욱씨가 팬들에게 비빔밥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입을 크게 벌려가며 자세하게 몸짓을 이용해 말하는 모습이 구연동화를 하는 유치원선생님 같았다. “우리가 조금 이따가 먹는 비빔밥은 밥에 나물 넣고 고추장 넣고 잘 비비는 거예요. 찬이 많으니까 먹을 때 얼리면 안 돼요.” 그의 친절함과 유머에 팬들은 즐거워했다. 팬들에게 비빔밥을 일일이 떠주던 안재욱씨는 “때론 실내에서 행사를 하다가 경치 좋은 명찰에서 팬들과 만나니 새롭다”며 “내년에도 우리 문화유산과 연계한 팬 미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욱씨와 강원도의 인연은 깊다. 그의 아버지 고향이 횡성이며, 아직도 친지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다. 2004년부터 ‘강원도 홍보대사로’ 선정돼 2005년 양양 산불 이재민을 위해 1000만원의 성금을 쾌척했고, 작년 팬미팅도 인제에서 개최했다. 강원도 홍보대사 뿐 아니라 해외팬들에게 우리문화와 전통사찰을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안재욱씨의 다음 행보가 기대된다. 박선주 기자

교육개혁 열쇠는 ‘인성교육’

한마음과학원, 김상곤 경기교육감 초청 간담회... ‘한나무 인성교육...’ 등 소개

최근 일부 10대들이 사이버 공간에 만든 ‘엄마 안티 카페(cafe.naver.com/mom***)’가 알려지면서 국민이 충격에 휩싸였다. “우릴 괴롭히는 부모라는 그들을 항상 따르고만 있어야 하는 건가. 그들을 증오하는 자여, 이리로 오라.” “자식을 상처 입혀 괴롭히는 부모가 부모인가. 우린 너희들 노예가 아니야. 000들이.” 등 부모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욕설로 도배된 카페는 지금은 성년 네티즌들의 공격으로 폐쇄된 상태.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뒤늦게 이 사건을 접한 이들은 대부분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문제의 카페가 2007년부터 운영돼 왔다는 사실에는 모두가 망연자실하는 모습이다.

무엇이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을까? 아이들을 바르고 곧게 키울 수는 없을까? 교육전문가들은 “인성교육만이 아이들을 곧게 키우고, 사회를 바로 세울 대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마음선원 산하 한마음과학원(이하 과학원)은 7월 25일 국제회의실에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경기지역 첫 민선 교육감인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해 김용환 한마음과학원 기획조정실장, 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앞줄 왼쪽 두 번째)이 7월 25일 한마음과학원을 찾아 김용환 한마음과학원 기획조정실장(앞줄 세 번째) 등 한마음과학원 관계자로부터 ‘한나무 인성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울 모 초교 원정숙 교사, 서울 모 고교 흥은화 교사 등 한마음과학원 인성교육연구회 및 교육분과 회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초·중·고교 등 공교육현장에서 과학원이 개발한 ‘한나무 인성교육프로그램’으로 다년간 인성교육을 실천해왔다. 이들이 사례를 통해 전하는 교육현장의 현실과 인성교육 효과에, 참석자들은 모두 “마음”을 바탕으로 한 심성교육의 우수성과 필요성을 절감했다.

특히 김상곤 교육감은 “도의회에서 (무상급식 등 공약이 무산되면서)

듣도 보도 못했던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괴로웠다. ‘한나무 인성교육프로그램’을 미리 알았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용광로에 던져 녹여버리고 쉽게 안정을 찾았을 것”이라고 말해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한국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은 청소년의 인성파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던 1990년대 중반 시작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탐방, 역할극, 토론 등 다양한 형태로 여러 교육현장에서 시도돼 왔다. 하지만 초기의 인성교육은 속효성에 집중하면서 유교적인 정직, 질서, 준법 등을 강조했다. 그때 각인된 ‘인성교육=예절교육’이라는 등식은 지금까지도 ‘인성교육은 고리타분한 교육, 할아버지 잔소리 같은 뻔한 이야기’로 남아 인성교육의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학원이 2004년 개발을 시작한 ‘한나무 인성교육프로그램’은 학생이 교사로부터 가르침을 받던 일방적인 소통에서 과감히 탈피해, 교사와 학생이 함께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밝혀나가는 과정으로 이뤄졌다.

교사와 학생의 소통은 ‘한나무 인성교육 프로그램’ 홈페이지

(hannamu.org)에서 다시 교사와 교사간, 학생과 학생간의 소통으로 확장됐다. 홈페이지는 A와 B학교 구성원들이 ‘마음’을 주제로 한 자리에 모인 인드라망인 셈이다.

초등인성교육과 중등인성교육으로 나뉜 프로그램은 무엇보다 태도교육이 아닌 마음에 대한 치유, 마음의 계발이 최대의 장점이다.

정여순 교사는 “산만했던 아이들이 매일 10분의 마음공부로 크게 바뀌었다”며 “가끔 명상을 안하고 지나갈 때는 아이들이 먼저 하자고 말할 정도로 반응이 좋다”고 설명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핵심공약인 혁신학교 건립·운영에 인성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경기도 교육청 차원에서 한나무 인성교육프로그램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무 인성교육프로그램’을 도입 검토중인 경기교육청의 움직임이 타지역 교육청에도 씨앗으로 전해져 우리 사회에 공생(共生)의 나무를 움 틔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7면 조동섭 기자

정법 찾대로 한국불교 재보자

정법불교 모색하는 지리산 아담법석
8월 14~18일 실상사 일원에서 개최

초기·대승·선·현대불교가 하나로 관통되는 불교관을 확립하고 이론과 실천 수행과 생활이 통일되는 수행론을 형성해 현대문명의 문제에 응답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아담법석은 법사스님의 강의와 각본도 연출도 없는 허심탄회한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무비 스님 음직이는 선원 조실	혜국 스님 전국선원수좌 대표	향봉 스님 음직이는 선원 열중	도법 스님 음직이는 선원 열중
---------------------	--------------------	---------------------	---------------------

참가신청·문의
-실상사 총무소: 063-636-3031 · 3191
-입금계좌: 513160-51-024632(농협, 예금주:실상사)

주최: 민족성지 지리산을 위한 불교연대 · 주관: 실상사 · 후원: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Hot.....

영정 스님 14선지식	능화 스님 19문화	박상구 08불자들
----------------	---------------	--------------

법구경
수행자여, 그대는 니르바나
저 영원의 길을 향하여
부지런히 묵묵히 나아가라.

현대불교 @ 샵터
HyunbulShop.com
문의전화 02)2004-8215~6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창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02)3672-7181~5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불경금액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복장 의식 및 소장용으로 휴대가 가능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형 주문 제작이 가능합니다.
성물 크기(15x9cm) 규격권 23매
원도: 상량사, 법사, 복장 의식, 영기전도
문의 02)722-1850

문젠 명상 센터
선 / 명상 / 요가
임산부 요가
02-956-2460

얼레와일 두리야 전문
보이차, 각종 차류
생활 도자기
031)882-1357
전국 직점 배송